한국 영부인의 역할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 연구

김영삼 · 김장현* · 전여선**†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디자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A Study on Fashion Images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Korean First Ladies

Young-Sam Kim · Jang-Hyeon Kim* · Yuh-Sun Jun**†

Dept.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Arts, Chung-Ang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접수일(2012년 8월 14일), 수정일(2012년 9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9월 10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public images, role types, and fashion images of Korean First Ladies in modern times to find a correlation of a standard through an analysis of literature review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official functions in formal situations, First Ladies represent a type of customary presidential protocol and offer appealing neat images through a moderate style and simple mode. In other situations, such as non-formal times, they show duty-based roles in regards to the lady of the house as well as the companion of the president that are represent soft and comfortable images through a feminine style and graceful mode. Second, it reflects their tastes and images in the silhouette and colors of Western style clothing through the personal roles and activities of the First Lady. Third, the Korean First Ladies tend to prefer the feminine image of housewife-based assistant that shows that they prefer clothes with a regular repetition and stabilized pattern such as dots and checkered patterns. Fourth, as compared to a previous period, they create a style for bright images and dainty feelings that use a variety of colors and light fabrics that represent many aspects of political assistance with active support.

Key words: First Ladies, The role types of First Ladies, Fashion images, The First Ladies' clothes in western style; 영부인, 영부인의 유형, 패션이미지, 영부인의 양장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국가 대통령의 배우자는 해당 국가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

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영부인들은 사회지도층의 여성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내적,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스타일로도 대중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신문이나 패션잡지에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Obama)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와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Sarkozy)의 영부인인 카를라 부르니(Carla Bruni Sarkozy)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서로 대비하여 기사화하였다(Kim et al., 2012). 미셸 오바마의 경우 ‘검은 재클린’이라 불릴 만큼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으며,

†Corresponding author

E-mail: sunny1921@daum.net

본 논문은 2011년 대통령기록관에서 의뢰한 [의상갤러리] 온라인 콘텐츠의 집필내용을 토대로 연구되었음(<http://www.pa.go.kr>).

모델 출신인 카를라 부르니는 패션종주국인 프랑스에서 비로소 패셔너블한 영부인을 얻었다는 설레임과 동시에 미셸 오바마와의 패션경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부인들의 패션과 그 이미지는 대통령의 정치 이상으로 국민들의 특별한 시선과 관심을 받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영부인에 대해 대통령을 내조하며 자신의 성향을 표면적으로 잘 노출하지 않는 이미지로 인식하기 때문에(Lee, 1997), 특정 영부인의 패션스타일과 그에 따른 이미지가 언론에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현대 한복 변천과 영부인 한복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거나 공식석상에서 영부인의 한복을 중심으로 한 의복행동에 관하여 분석하는 연구(Cho, 2006, Park, 1994)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의 한 명인 제클린 케네디의 의상을 중심으로 하는 ‘재키스타일’에 관한 연구(Lee, 2001; Lee, 2011)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영부인의 의복과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영부인의 특정 상황에 따른 한복 및 헤어 스타일을 분석하거나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부인의 양장유형에 따른 의상특징 및 이미지를 다룬 주제를 선정하여 추후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 및 인물과 관련해 다수에게 전달되는 본인의 이미지와 패션스타일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의복코디네이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 영부인의 양장유형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한국 역대 영부인들의 대중적인 이미지와 역할유형을 분석하여 의상에서 나타나는 패션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영부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국가기관(국가홍보처, 문화공보부,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발행된 참고서적, 청와대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영부인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진이 영부인 의상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목적으로 대통령 기록관(<http://www.pa.go.kr/>)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영부인 양장사진자료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한 사례분석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제

공받은 기초사진자료는 영부인의 양장사진 15장이며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부인들의 의상사진자료는 영부인들이 재임시기 착용한 양장의 형태이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분류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의 약 7개월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 근거로서 영부인의 보도자료를 분석하여 영부인을 특징별로 분류하는 연구방법(Park & Yoon, 2008)과 영부인의 역할을 개념화하여 분류하는 연구방법(Caroli, 1995; Wekkin, 2000)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기초한 분석기준을 마련하고 분석기준의 키워드를 토대로 한국 영부인의 양장유형을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범위는 제1~3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제4대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 제5~9대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제11~12대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8명의 역대 영부인이 착용한 양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영부인은 총 10명이나, 최귀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는 대통령의 짧은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영부인 또한 공식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Ham, 2001) 공식적인 사진자료와 관련기사가 거의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는 재임기간 중의 연구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II. 영부인에 대한 고찰 및 역할유형에 따른 의상 및 이미지 분석

1. 영부인(First Lady)에 대한 일반적 고찰

영부인(“First Lady”, 2012)의 사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영부인(令夫人)의 부인 앞에 붙은 ‘영(令)’은 존경의 뜻을 나타내어 남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되는 접두사로써 특히, 영부인이란 사회적(社會的) 신분(身分)이 높은 사람을 높여 그의 아내를 이르는 말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Lee(1997)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에 해당되는 가장 적절한 한국의 용어로서는 영부인이 가장 적합하며 극존칭으로 사용되어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상응하는 역할과 정치

적 위상과 위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호칭은 박정희 정부 때에 각하라는 존칭을 대통령에게만 붙이게 됨에 따라, ‘영부인’이란 호칭도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역대 영부인의 외모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Yoo and Lee(2008)에 따르면 영부인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아내이자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1참모의 존재라고 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노태우 정권부터 탈 권위의 상징으로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뜻을 포함한 영부인의 호칭 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종 언론 등에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통칭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Lee, 2008).

한국에서는 ‘영부인’의 의미에 대하여 Lee(2011)에 따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아내이자 국가를 대표한 여성인물로서 각 나라와 시대의 여성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이라 정의하였다. 미국에서 영부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로는 The First Lady가 있으며 미국연방법전(USC) 제3편 105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First Spouse)라고 법적 용어로써 명시되어있다(Lee, 2008).

이와 같이, 영부인은 사전적인 의미로 ‘남의 아내를 존칭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나, 대중들에게 통상적으로 인식되어 온 영부인은 ‘The first lady’와 동일한 개념인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영부인은 대통령의 아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정치적 조언자 및 정치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영부인의 역할유형 및 특징

본 연구에서는 영부인들의 효과적인 의상 분석을 위하여 한국 영부인의 역할 및 영향력에 따른 특징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국내 역대 영부인의 활동에 따른 각 영부인들의 특징을 Lee(1997)는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가정주부의 역할과 소극적 정치참여 형태가 결합된 전통적 내조형과 가정주부의 역할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적 내조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주요 신문인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신문보도자료를 통해 분석한 Park and Yoo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영부인들의 특징을 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한국의 영부인들은 주로 공식

행사에 관례적으로 참석하는 의전적 영부인으로 보도되었으며, 둘째, 한국의 영부인들은 대통령과 동반하여 활동하는 대통령 의존형으로 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영부인들은 정치적·정책적 활동보다는 청와대의 안주인으로서 기본책무에 안주하는 소극적인 스타일로 보도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Ham(2001)은 영부인의 지적 전문성과 정치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영부인의 역할을 개념화하였는데, 별도의 전문성 없이 공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내조적인 전통적 내조형, 전문성보다는 간접적으로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꽃속 내조형(그림자형), 전문성은 없으나 공식적 활동과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적 내조형,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의례적으로 공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전략적 후퇴형, 지적, 정치적 전문성은 가지고 영부인의 공식적, 정치적 역할은 하지만 공식적인 정책통로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 연결망적 참여형, 마지막으로 지적, 정치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치적, 정책적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완전한 동반자로서의 참여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영부인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치행정학계 연구 및 언론학계 연구, 질적 연구, 역할개념화 연구의 일반적인 세 종류의 연구중, 영부인의 역할을 개념화하여 영부인별로 분류한 연구가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Wekkin(2000)은 영부인의 활동성과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영부인의 유형을 6가지로 나누었는데, 대통령의 정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정치에 부적합한 비활동적 은둔형(the conscript), 전통적 의미의 내조자 또는 마음의 친구, 어머니형으로 대통령에게 소극적인 조언을 담당하는 방패형(the shield)이 있다. 또한, 정치적 요부형(the court-essan)은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려하고 그들의 존경과 복종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적극적 개입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대통령이 공적 비밀까지도 상당하고 공유하는 신뢰적 조언형 영부인인 상담고문형(the consigliere)이 있다. 섭정형(the regent)은 정책적 영향력이 대통령 못지않게 강한 ‘그림자 대통령(Shadow President)’이라 불리는 영부인 유형이며, 대통령의 완전한 정책 동반자로 간주되는 공동 대통령형(the co-President)의 유형도 있다(Caroli, 1995; Wekkin, 2000). 다음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영부인의 활동과 역할 및 영향력에 따른 특징분류 및 본 연구의 분석기준을 도표화해보면 다음과 같다(Fig. 1).

Fig. 1. The analyzing standard for the study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features according to Influences, Roles, and Activities of the First Lady.

3. 영부인의 역할유형에 따른 한국 영부인들의 의상 및 이미지 분석

1)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Cho(2009)는 프란체스카 여사(1900~1992)는 빼어난 속기와 타자 능력, 그리고 국제자격증을 보유한 영어 통역 능력 등으로 당시 비서실 체제가 약했던 경무대에서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지적, 정치적 전문성을 함양한 프란체스카 여사가 다소 정착되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완전한 동반자적 참여형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양장의 보존 및 수선된 상태를 관찰해 보면 가정주부의 세심함과 검소함이 나타나는데, 이는 검소한 모습의 안주인이라는 이미지의 정치적 내조형 역할 또한 동반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여사는 차분하고 중성적인 색상을 선호하여 착용한 대부분의 슈트 색상이 회색 또는 검정색의 뉴트럴(neutral) 계열로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중립성을 띄는 이미지로 분석된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검정색 모직 슈트<Fig. 2>는 둥근 어깨라인을 강조한 실루엣의 재킷으로 깊게 파인 네크 라인과 다소 타이트한 허리라인이 특징이며 검정색 레이스 블라우스를 재킷 안에 착용하여 디테일을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스커트의 끝단이 비치는 느낌을 연출함으로써 부분적인 시스루(see-through)의 느낌을 연출하였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진회색 모직 슈트<Fig. 3>는 둥근 어깨라인, 브이네크라인 칼라와 다소 짧은 허

리라인이 특징적이며 이와 어울리는 길고 좁은 사각형 모양의 디테일이 재킷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일자형 실루엣의 교복만큼이나 절제되고 단정한 스타일이다. 일자형 주름이 스커트의 뒷부분에 크게 잡혀있다. 김용희 한국현대상박물관 실장은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의상을 수차례에 걸쳐 수선을 하며 36년간 입었으며, 무궁화 무늬가 든 안감을 떼어다가 모든 치마에 그 안감을 덧대 사용했던 것이라 전하였다. 모직 슈트는 자세히 보면 목깃 접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수십 번 천을 덧댄 자국이 보이는데, 머느리 조혜자 씨는 시어머니를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으로 스타킹을 신다가 구멍이 나면 버리지 않고 뭉쳐 구두 속에 넣어놓아 구두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였다고 전해지며, 치마 안감에 무궁화 무늬를 새겨 넣은 점도 특징적인데, 프란체스카 여사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의상 안감에 무궁화 무늬를 새겨 넣게 했다고 하였다(Lee, 2009).

2)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 공덕귀 여사

공덕귀 여사(1911~1997)는 실제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여성으로 지적, 정치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의례적으로 공식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공여사의 활동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상담자문형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가정주부의 수수한 이미지보다는

Fig. 2. Black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From The black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2011).
<http://www.pa.go.kr>

Fig. 3. Dark grey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From The dark grey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2011).
<http://www.pa.go.kr>

Fig. 4. Caneware linen suit with short sleeves of Mrs. Deok-Gwi Gong.
From The caneware linen suit with short sleeves of Mrs. Deok-Gwi Gong. (2011). <http://www.pa.go.kr>

날씬하고 깨끗한 인상의 신여성의 이미지였던 여사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슈트가 잘 어울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Lee, 2009). 공덕귀 여사의 감색 리넨 반소매 슈트<Fig. 4>는 감색 바탕에 주황색과 베이지색 스트라이프가 엇갈린 형태의 패턴으로 디자인된 여름용 슈트로써, 스케어넥라인, 플랫칼라 및 사이드 입술포켓이 특징적이다. 공 여사가 신여성이면서도 상당한 멋스러운 스타일을 추구하였다는 점은 구김이 잘 가서 다루기 아주 까다로운 소재인 리넨소재를 조화롭게 디자인적으로 활용하여 착용한 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3)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육영수 여사(1925~1974)는 온화한 이미지의 가정적인 영부인 이미지로 대표되고 있으며,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정치적 내조형에 가까운 공식적 활동과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적 내조형으로 분류된다. 한복 맵시가 유난히 돋보였던 육 여사는 양장을 입을 때도 시폰 블라우스와 플레이스커트·원피스 등 여성스러운 아이템 위주로 선택해 다정한 어머니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영부인 패션의 교과서라 불리는 육영수 여사는 이러한 이미지에 맞게 우아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즐겨 입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본인이 직접 옷감을 가져다 개인적으로 옷을 주문해 입는 쪽이었다고 한다(Lee, 2009). 넓은 플랫칼라와 긴 소매의 흰색 커프스가 달린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원피스인 오렌지색 바탕의 흰색 폴카도트 셔츠드레스<Fig. 5>는 허리에는 같은 소재의 흰색 라운드버클이 달린 벨트를 착용하고 앞여밈에서는 목선에서 허리까지의 단추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규칙적인 도트무늬의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와

오렌지 색상에 흰색을 배색한 친근하고 발랄한 스타일은 육여사의 활동적 내조형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확립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도트 셔츠드레스에 흰색 리본 타이네크(tie-neck)를 매치하여 신선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미하였다. 흰색 바탕의 검정색 폴카도트 플레이드레스<Fig. 6>는 넓은 흰색 플랫칼라와 반소매의 흰색 커프스가 시원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흰색 바탕에 검정색 도트무늬는 세련된 감각을 나타내었고 두 겹의 넥타이와 플랫칼라는 젊고 화사한 느낌과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이 넓어지도록 주름을 풍성히 잡은 무릎아래 길이의 원피스드레스로 얇은 벨트를 착용하여 허리라인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4)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

이순자 여사(1939)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이순자 여사의 스타일은 1980년대 컬러TV시대 도래와 국민소득 상승과 함께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영부인의 활동영역이 확장되었던 시기로, 정치적인 전문성은 없으나 공식적 활동과 정책적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적 내조형의 역할과 관례적 의전형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대 영부인 중 패션으로 인해 가장 큰 관심을 받았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과감한 스타일 또한 시도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패션업계는 이 여사를 “당시 유행 경향을 정확히 알고 이를 의상에 반영한 멋쟁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Cho, 2009). 상의의 소매 끝부분, 사이드포켓, 그리고 넥라인에서 스커트 끝단까지 이어지는 검은색, 흰색의 두 라인 디

테일 장식이 특징적인 노랑색 니트 슈트<Fig. 7>는 이러한 바탕색과 강한 라인의 디테일이 대비를 이루어 의상의 포인트를 주고 있다. 긴 소매의 끝단에 부착된 금색 단추와 안쪽에 함께 매치한 흰색과 검은색 패턴이 화려하게 어우러진 블라우스가 니트 슈트를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여사가 1986년 벨기에 농아 학교 방문 시 착용하여 박물관에 기증한 검정색 체크무늬 슈트<Fig. 8>는 넥타이와 어깨패드를 넣어 강조한 80년대 파워 슈트의 전형을 보여주며 당시 유행한 체크무늬와 유니섹스 룩(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의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였다. 이처럼 남성복과 같이 어깨라인을 강조한 유니섹스 룩의 유행은 1987년 3월호 『월간 멋』 걸표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남성복 같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중절모를 쓴 여성모델이 등장하기도 한다.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스커트 허리벨트에 검정 라인 디테일과 체크무늬의 패턴대비 및 남성적인 느낌의 검정색 넥타이와 흰색 와이셔츠의 색상대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 김옥숙 여사

김옥숙 여사(1935)는 자신의 온화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림자 내조’를 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며, 전문성보다는 간접적으로 막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형으로 분류된다. 여사가 즐겨 입던 의상은 영부인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스타일에 있어서는 유행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스타일을 추구했다고 전

한다(Kim & Gong, 2009).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소련을 방문하여 제2타자소 견학 시 착용한 원피스드레스인 청보라색의 검정 폴카도트 드레스<Fig. 9>는 A라인의 길이가 긴 플리츠스커트에 같은 원단의 넓은 벨트를 매치시키고, 소매 끝에 검정 벨벳을 덧댄 것이 특징이며 라운드넥라인으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강조하였다.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 모스크바 대학 방문 시에 김옥숙 여사가 착용한 검정색 원피스드레스인 검정 하이네크라인 드레스<Fig. 10>는 A라인의 길이가 긴 플리츠스커트에 정중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하이네크라인 원피스드레스이다. 또한,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검정색의 의상에 노란 나비버클 장식이 들어간 벨트를 매치하여 포인트가 있으면서도 정중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6)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

손명순 여사(1928)는 조용하고 온유한 내조를 펼친 영부인으로써 별도의 정치적인 전문성은 가지지 않고 공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내조적인 역할의 안주인 기본 책무형, 전형적인 전통적 내조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손명순 여사는 화려한 색상보다는 차분한 색상의 양장과 한복을 선호하였으며, 스타일 또한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세련된 양장을 즐겨 입었다(Kim & Gong, 2009). 손명순 여사의 갈색 체크 슈트<Fig. 11>는 발목까지 오는 긴 랩스커트와 칼라가 없는 재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정장은 고상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을 자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Fig. 5. Orange colored dress with white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From The orange colored dress with white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2011). <http://www.pa.go.kr>

Fig. 6. White Flared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From The white flared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2011). <http://www.pa.go.kr>

Fig. 7. Beige colored knit suit of Mrs. Soon-Ja Lee.

From The beige colored knit suit of Mrs. Soon-Ja Lee. (2011). <http://www.pa.go.kr>

Fig. 8. Black checkered pattern suit of Mrs. Soon-Ja Lee.

From The black checkered pattern suit of Mrs. Soon-Ja Lee. (2011). <http://www.pa.go.kr>

Fig. 9. Blue-violet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Oak-Sook Kim.
From The blue-violet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Oak-Sook Kim. (2011). <http://www.pa.go.kr>

Fig. 10. Black high-neckline dress of Mrs. Oak-Sook Kim.
From The black high-neckline dress of Mrs. Oak-Sook Kim. (2011). <http://www.pa.go.kr>

Fig. 11. Brown checkered suit of Mrs. Myung-Soon Sohn.
From The brown checkered suit of Mrs. Myung-Soon Sohn. (2011). <http://www.pa.go.kr>

Fig. 12. Pastel pink suit of Mrs. Myung-Soon Sohn.
From The pastel pink suit of Mrs. Myung-Soon Sohn. (2011). <http://www.pa.go.kr>

한 어두운 색상의 재킷에 살구색의 테두리 장식은 이 의상에 우아함을 더해주고 있다. 분홍색 슈트<Fig. 12>는 라운드칼라의 블라우스 위에 브이네크라인의 정장 재킷, 발목까지 오는 긴 플리츠와 스커트의 조합으로 차분하면서도 고상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의상에 입체적인 단추와 패치포켓을 활용하여 장식성을 더하였다.

7)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이희호 여사(1922)는 영부인의 공식적, 정치적 역할은 하지만 공식적인 정권통로 역할은 담당하지 않는 연결망적 참여형 또는 상담자문형의 역할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의상은 여성스럽고 우아한 스타일보다는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다. 특히 이 여사는 마른 체형과 연령을 고려하여 밝은 색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였고 박스형 실루엣의 재킷정장을 즐겨 입었다고 전한다(Kim & Gong, 2009). 이희호 여사가 착용한 클래식한 슈트인 연두색 브이네크라인 슈트<Fig. 13>는 1998년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식행사 때 입었던 의상이다. 실용적인 스타일의 정장을 주로 입었던 이 여사는 다양한 공식행사에 파스텔톤(Pastel tone) 의상을 주로 입었다고 전한다. 이 의상은 디자이너가 제작한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복으로서 이 여사의 실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늘색 원피스와 코트<Fig. 14>는 평소 이희호 여사의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밝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에 흰색의 포인트 색상을 매치한 원피스와 코트이다. 코트의 칼라와 포켓, 그리고 커프스의 가

장자리를 흰색의 트리밍 디테일로 장식함으로써 여사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였다.

8)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1947)는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공식적 활동을 담당하는 활동적 내조형으로 분류되는데, 평소에는 소박한 스타일을 추구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과감하고 화려한 의상들을 시도하기도 하였다(Kim & Gong, 2009). 다양한 스타일을 수용하였던 권양숙 여사는 평소 한복과 양장을 병행하였고, 해외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색상을 연구해 의상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파란색 슈트<Fig. 15>는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스 국민 방문 시 착용한 의상으로 그리스 국기에서 나타나는 파랑 색상을 의상에 반영한 것이다. 이 의상의 재킷은 태양의 문양과 푸른 색상의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단추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더하였으며, 포켓의 덮은 부분을 분리하여 디자인에 신선함을 나타내었다. 진달래색 슈트<Fig. 16>는 진한 진달래색이 강렬한 인상을 주는 권양숙 여사의 슈트이다. 이 의상의 디자이너는 ‘북한에서 입을 의상’이라는 주문을 받고 북한에 흐드러지게 피는 진달래꽃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권양숙 여사는 해외 방문 시 해당 국가의 색상을 연구해 의상에 반영했는데, 이 슈트 역시 그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이 의상은 검정색 포버튼(Four-button)의 장식과 허리라인이 들어간 멋스러운 재킷과 무릎아래 길이의 스커트로 현대적이면서도 단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Fig. 13. Pale green v-neckline suit of Mrs. Hee-Ho Lee.

From Pale green v-neckline suit of Mrs. Hee-Ho Lee. (2011). <http://www.pa.go.kr>

Fig. 14. Sky blue one piece dress and long coat of Mrs. Hee-Ho Lee.

From The sky blue one piece dress and long coat of Mrs. Hee-Ho Lee. (2011). <http://www.pa.go.kr>

Fig. 15. Vivid blue suit with big side pockets of Mrs. Yang-Sook Kwon.

From The vivid blue suit with big side pockets of Mrs. Yang-Sook Kwon. (2011). <http://www.pa.go.kr>

Fig. 16. Magenta suit with black four button of Mrs. Yang-Sook Kwon.

From The magenta suit with black four button of Mrs. Yang-Sook Kwon. (2011). <http://www.pa.go.kr>

III. 한국 영부인의 역할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

본 연구에서 한국 영부인의 역할유형에 따른 패션이미지에 대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정치적 상담자문형, 즉 적극적 정치참여와 전문지식형의 역할로 분석되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슈트는 직무와 관련한 상황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분하고 중성적인 검정색 모직 슈트, 진회색 모직 슈트 등 무채색 계열의 색상, 특히 전문직 여성들이 입는 의상에서의 브이넥 라인 칼라, 좁은 사각형 모양의 디테일이 나타났다. 또한 깊게 파인 네크라인, 검정색 레이스블라우스 등 대부분 여사가 착용한 패션스타일은 차분하고 중립적인, 중성적인 색상과 전문직 여성의 의상에서 주로 나타나는 외향적이면서도 중성적인, 심플한 패션이미지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윤보선 대통령 영부인 공덕귀 여사는 전통적 상담자문형으로 소극적 정치참여와 전문지식형으로 분석되었다. 의상에서도 가정주부의 수수한 이미지보다는 깨끗한 인상의 신여성 이미지를 강조한 의상스타일과 차분한 색상, 심플한 소재, 다채로운 디테일의 활용 등으로 이루어져 볼 때 명시적인 화려함은 나타나지 않으나 내향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패션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는 정치적 기본책무형의 역할로 정치적 내조형에 가까운 역할과 안

주인형이 혼합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의상에서도 밝은 색상과 역동적인 패턴사용 등에서 다소 과감한 디자인의 표현이 보이나, 전체적으로 무릎아래 길이의 원피스 드레스 등 안정된 실루엣과 심플한 소재의 활용에서 볼 때 활동적이면서도 여성스럽고 단아한 패션이미지를 강조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넷째,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정치적 기본책무형으로 적극적 정치참여와 안주인형의 역할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 여사는 색상의 대비에서 오는 화려함과 소재의 다양한 믹스매치로 이러한 이미지에 맞게 과감한 패션의 시도와 화려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의상스타일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상에서도 다양한 디테일 장식과 화려함을 보여주며 유행을 선도하는 적극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세련된 패션이미지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노태우 대통령 영부인 김옥숙 여사는 전통적 기본책무형으로 소극적 정치참여와 안주인형의 역할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우아한 색상의 사용과 기품 있는 이미지의 스타일로 밝은 색상과 가볍고 여성스러운 패턴 등이 주로 나타났으며 단순한 소재의 구성, 우아한 실루엣의 표현으로 볼 때, 우아하고 정중한 패션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는 전통적 기본책무형으로 소극적 정치참여와 안주인형의 혼합형으로 분석되었다. 클래식한 슈트스타일, 차분하고 밝은 색상의 선호와 단아한 이미지의 의상스타일을 주로 착용한 것으로 볼 때, 고전적이면서도 밝고 단아한 패션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전통적 상담자문형으로 소극적 정치참여와 전문지식형의 혼합된 역할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스럽고 우아함보다는 실용적이고 활동적이며 젊은 이미지를 선호하는 의상스타일로 살펴볼 때, 적극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패션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정치적 기본책무형으로 적극적 정치참여와 안주인형이 혼합된 역할의 형태이며 밝고 활동적인 적극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분석되었다. 단순한 실루엣과 원색에 가까운 밝고 선명한 톤의 색상 사용, 다채로운 디테일 장식 등 적극적이면서도 밝고 화려한 패션이미지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각 영부인들의 역할유형에 분석기준에 따른 의상에 나타난 패션이미지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Table 1).

IV. 결 론

오늘날 영부인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 영부인의 양장유형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한국 역대 영부인들의 이미지 및 역할유형을 분석하여 의상에서 나타나는 패

Table. 1. The analysis of fashion images according to the role type of Korean First Ladies

The Name	Role Types	Related Photo	The Name of Clothes	Fashion Style	Fashion Image
Mrs. Francesca Donner	The Political Consultant (Act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Expert Knowledge base)		Black woolen suit	Tailored jacket emphasized on round shaped shoulder-line. The black blouse with laces, Achromatic color, Low-cut neckline.	Neat and androgynous image related to duties.
		Dark grey woolen suit	Tailored jacket with a narrow shape of square, Achromatic color Backgrounds, Round shaped shoulder-line and v-neckline collar.	
Mrs. Deok-Gwi Gong	The Traditional Consultant (Pass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Expert Knowledge base)		Caneware linen suit with short sleeves	Summer suit, Caneware skirt with stripes in orange and beige crossed, Flat collars, Flap pockets.	Clean and modern image rather than the simple image such as a housewife

Table 1. Continued 1

The Name	Role Types	Related Photo	The Name of Clothes	Fashion Style	Fashion Image
Mrs. Young-Soo Yuk	The Political Duties bas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Lady of the House)		Orange colored dress with a white polka dot pattern	One-piece dress with ankle-length, Wide flat collars, Long sleeves with white cuffs, Belt attached white round-shaped buckle.	Warm-hearted mother's image with feminine items
		White Flared dress with a black polka dot pattern	One-piece dress with plentiful pleats and the length blow knees, White wide flat collars, white cuffs, short sleeves.	
Mrs. Soon-Ja Lee	The Traditional Duties based (Act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Lady of the House)		Black checkered pattern suit	Tailored jacket contrasted with black and white checkered pattern, The skirt with the length blow knees, Emphasizing shoulder line using pads, The inner contrasted with black mannish neck-tie and white Y-shirt.	Gorgeous and fashionable image attempted for a checkered pattern with an audacious style
		Beige colored knit suit	Beige tailored jacket with black and white lines, The blouse with black and white patterns, side pockets.	

션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영부인의 양장스타일은 주로 클래식한 이미지의 슈트로 재킷과 스커트 기본구성을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양장은 슈트를 중심으로 착용하였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원피스 드레스 중심의 양장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영부인들이

대체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관례적 의전형의 형태를 보여주며 슈트의 절제되고 심플한 스타일을 통해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이 밖의 상황에서는 안주인의 기본책무와 대통령의 동반자적 특징을 보이며 원피스의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을 통하여 부드럽고 편안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Table 1. Continued 2

The Name	Role Types	Related Photo	The Name of Clothes	Fashion Style	Fashion Image
Mrs. Oak-Sook Kim	The Traditional Duties base (Pass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Lady of the House)		Blue-violet dress with black polka dot	Long and blue-violet pleats dress with princess line, Black velvets at the end of sleeves details, Round- neckline, Wide blue-violet belt, and similar toned violet scarf.	Austere and graceful image with elegant colors
		Black high-neckline dress	Long and black pleats dress with princess line, High-neckline, Black belt with yellow-butterfly buckle details.	
Mrs. Myung-Soon Sohn	The Traditional Duties base (Pass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Lady of the House)		Brown checkered suit	Collarless brown jacket with a orange (ish) pink trimming, The ankle-length skirt, Gold silky blouse.	Classical image with a bright and pale toned color
		Pastel pink suit	Tailored jacket with v-neckline, Ankle-length pleat-skirt with round-collar blouse, Bold buttons and patch pockets.	

둘째, 영부인들의 역할 및 유형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향과 이미지가 양장의 실루엣과 색상 등의 스타일에 반영되었다. 이순자 여사, 권양숙 여사 등의 활동적인 내조형의 특징을 보이는 외향적 성향의 영부인들은 슈트에서 상대적으로 색상이나 패턴의 강한 대비와 배합, 소재의 과감한 믹스 앤 매치(mix & match) 등을 시도하려 명시적인 효과를 표현하였고, 전통적인 내조형의 홍

기 여사, 손명순 여사 등 내재적 성향의 영부인들은 기본적인 슈트의 디자인 및 실루엣과 다소 차분한 색상 표현 등 수수한 스타일의 양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략적인 후퇴형의 특징을 보이는 공덕귀 여사는 신여성이나 지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회색이나 감색 등 무채색 계열의 슈트를 주로 착용함으로써 중성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Table. 1. Continued 3

The Name	Role Types	Related Photo	The Name of Clothes	Fashion Style	Fashion Image
Mrs. Hee-Ho Lee	The Traditional Consultant (Act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Expert Knowledge base)		Pale green v-neckline suit	Pastel jade collarless tailored jacket, The knee-length skirt.	Practical and energetic image rather than a feminine and graceful image
		Sky blue one piece dress and long coat	Bright pastel toned blue one-piece dress and long coat with white trimming on collar and scuffs, Flap Pockets.	
Mrs. Yang-Sook Kwon	The Political Duties base (Actively Political Participation + The Lady of the House)		Magenta suit with black four button	Dark azalea-color suit, The tailored jacket with four black buttons, The length below knees skirt.	Gorgeous and audacious image at formal meetings and a simple style in ordinary times
		Vivid blue suit with big side pockets	Vivid blue suit with Flap Pockets, Buttons with decorated solar shape and blue-color jewelry.	

셋째, 양장에 나타난 패턴에 있어서 도트무늬, 체크 무늬 의상 착용 양상이 주로 나타남으로써, 영부인들은 규칙적이고 안정된 무늬들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가정적인 내조형의 여성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영부인들은 이

러한 안정적인 패턴들을 선호하였음을 나타내준다.

넷째, 후기로 갈수록 의상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색상이 밝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현대로 들어오면서 과거의 소극적인 정치참여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내조를 하는 정치적 내조의 형태가 많아짐으로서 영부인의

스타일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 또한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색상에서 다소 과감하게 밝고 화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장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분석한 연구로서 추후에는 양장 이외의 한복 또는 다른 의상유형을 포함하여 영부인들의 포괄적인 패션스타일과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국외의 영부인 또는 왕족들의 의상별 특징에 따른 패션이미지도 함께 비교하여 국가별 영부인 또는 왕가의 패션스타일이 이미지와 어떠한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References

- Caroli, B. B. (1995). *First Lad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o, H. S. (2006). Changes in modern Han-Bok and the First Ladies' costu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2), 17-31.
- Cho, S. A. (2009, May 16). 역대 영부인들 패션 비교해부 [The comparison and the analyzation in fashion of the Korean First Ladies of all times]. *Chosun Ilbo*. Retrieved June 12, 2012, from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3945531&userId=sh006>
- First Lady. (2012, June 17).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trived June 17, 2012,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Ham, S. D. (2001). *영부인론* [(The) Korean First Ladies]. Seoul: Nanam.
- Kim, H. J., & Gong, S. T. (2009, November 6). 한국형 영부인 패션 [Fashion of the Korean First Ladies]. *Donga Ilbo*. Retrieved 2012, June, 12, from <http://news.donga.com/3/all/20091106/23901367/1>
- Kim, Y. S., Jun, Y. S., & Kim, J. H. (2012). Korean First Ladies' fashion image: The study on the types according to the First Ladies' clothes in western styl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Spring Conference, Korea*, 234-235.
- Lee, E. Y. (2001) *Study on 'the Jackie style': Between the year 1961 and 1963 when she was the first la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M. J. (2008). *Investigation about define the function of the First La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S. H. (1997). The study on the type and the role of the Korean First Lad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onference on September, Korea*, 221-237.
- Lee, S. H. (2009, October 29).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할-프란체스카·육영수 역대 영부인 의상 한자리에 [Changing roles according to the times-the Korean First Ladies' clothes together (Mrs. Francesca Donner, Mrs. Young-Soo Yuk and so forth)]. *Hankook Ilbo*. Retrieved June 12, 2012, from <http://news.hankooki.com/lpage/health/200910/h2009102923303484530.htm>
- Lee, Y. J. (2011). A study on formation and design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First Lady look-Focus on two pieces dress of Jacky styl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7(2), 467-479.
- Pale green v-neckline suit of Mrs. Hee-Ho Lee.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8/1325336_5239.html
- Park, J. Y., & Yoon, Y. M. (2008). Media portrayals of First Ladie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orty years: A content analysis of the Chosun Ilbo and the JoongAng Ilbo. *Journal of Media, Gender and Culture*, 10, 71-108.
- Park, S. K. (1994). The study on clothing behavior of the Korean First Ladies-Focused on "Han-bok" at the official function-. *The Journal of Graduate School in Ewha Womans University*, 26, 226-246.
- The beige colored knit suit of Mrs. Soon-Ja Lee.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5/1325318_5236.html
- The black checkered pattern suit of Mrs. Soon-Ja Lee.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5/1325317_5236.html
- The black high-neckline dress of Mrs. Oak-Sook Kim.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6/1325323_5237.html
- The black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1/1325295_5216.html
- The blue-violet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Oak-Sook Kim.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6/1325324_5237.html
- The brown checkered suit of Mrs. Myung-Soon Sohn.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7/1325329_5238.html

- The caneware linen suit with short sleeves of Mrs. Deok-Gwi Gong.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2/1325304_5233.html
- The dark grey woolen suit of Mrs. Francesca Donner.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1/1325298_5216.html
- The magenta suit with black four button of Mrs. Yang-Sook Kwon.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9/1325342_5240.html
- The orange colored dress with white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3/1325395_5226.html
- The pastel pink suit of Mrs. Myung-Soon Sohn.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7/1325328_5238.html
- The sky blue one piece dress and long coat of Mrs. Hee-Ho Lee.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8/1325335_5239.html
- The vivid blue suit with big side pockets of Mrs. Yang-Sook Kwon.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9/1325341_5240.html
- The white Flared dress with black polka dot of Mrs. Young-Soo Yuk. (2011, December). *Presidential Archives*. Retrieved April 17, 2012, from http://www.pa.go.kr/online_contents/clothes/clothes03/1325395_5226.html
- Wekkin, G. D. (2000). Role constraints and First Ladies. *The Social Science Journal*, 37(4), 601–610.
- Yoo, S. H., & Lee, H. Y. (2008). The study in relevance with working characteristics and fatigue scale for the beauty art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ke-up Design*, 4(3), 215–223.